대한한의진단학회지 제19권 제2호(2015년 8월)
The Journal of the Society of Korean Medicine Diagnostics. 2015; 19(2): 109-113
[원저 Original Article]

변증이론 선택을 위한 진단적 과정

김태희

김태희한의원

Abstract

Steps Of Deciding ByunZheng(辨證)

Kim, Tae Hee

KimTaeHee Asian Medical Clinic

Byunzheng(辨證), 'Identification of Patterns' implies the process of identifying the original cause from symptoms and signs. Each symptom and sign has a meaning that manifests. But in Clinic,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e main cause through symptoms and signs by itself, because the patients complaint their symptoms differently. When considering Byunzheng, not only one symptom of one cause but relationship of manifested symptoms and causes are necessary.

The object of Byunzheng is to diagnose Illness and disease through symptoms and signs and to coordinate Therapeutic Methods by Byunzheng.

In Byunzheng, there are patterns according to the function of Internal Organs(臟腑), the Channels, the Eight Principles, the Five Elements and etc.

Process to Diagnose Byunzheng is the most important. Until present, it is not clear to conclude the Byunzheng process or criteria. In certain case of Byunzheng is recognized by doctor's intuition, but most case is needed for conscious reasoning.

Therefore, in this statement, process of conclude Byunzheng is reviewed rather than describing each character of Byunzheng.

Key Words

Byunzheng(辨證), Identification of Patterns, Therapeutic Methods, process, patterns

* 교신저자 : 김태희 / 소속 : 김태희한의원
TEL : 02-548-0033 / E-mail : oskth02@hanmail.net
투고일 : 2015년 8월 01일 / 수정일 : 2015년 8월 25일 / 게재확정일 : 2015년 8월 26일

I. 서론

한의학에서 변증이란 외부에서 얻어지는 증거인 증상에 의해 내부의 본질을 파악하는 과정을 의미한다[1]. 그러나 외부로 나타나는 환자의 주소증이나 증상들은 내부의 원인에 의한 단순한 반응이 외부로 발현되는 것만은 아니며, 원인에 따라 각각 한 가지 증상만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2]. 또한 환자마다 증상에 대해 표현이나 형태 역시 상이하다. 이런 상황에서 단서를 찾아 원인을 찾고 증상들 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변증이 필요하다[1].

변증을 하는 것은 환자의 주소증 또는 호소 증상에서 主症을 찾고 증상들 간의 상관관계를 象에 의해 진단하고 치법을 설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3]. 이러한 과정은 반드시 논리적 전개와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하며, 이렇게 진단될 때만이 정상적으로 변증했다는 검증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변증은 여러 가지 변증이론을 선택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변증이론은 장부변증, 경락변증 등과 같이 구체적이고도 제한적인 이론과 팔강변증 오행변증 등 범위가 넓은 이론이 있고 이들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다. 대개의 경우, 이런 이론 가운데에서 하나 또는 두 가지의 이론을 선택하여 변증을 진행할 수 있다.

임상에서 변증이론을 쉽게 선택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환자의 증상이 변증 이론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한 경우에는 어려움 없이 해당 변증이론을 선택하면 된다.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는 호소 증상이 복잡하여 어떤 이론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변증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구체적 변증이론을 선택하기까지의 과정이다. 즉, 장부변증을 써야 할 경우라면 장부 변증을 써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변증에 대한 검증 역시 가능하다. 현재까지는 변증이론의 선택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한 부분이 거의 없다.

실제로 한의사들이 변증을 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필요한 변증의 논리적 전개, 과정 그리고 기준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제시한 것이 없다[4].

지금까지 변증에 대한 연구는 많으나[4] 변증에 대해 논리적 전개나 정해진 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된 바가 아직은 없다[5]. 중국에서 발행된 2007년 『중의진단학』을 보면 진단사고의 일반적 방법에 대해[1 6] 논리적 사고뿐만 아니라 형상에 대한 직관적 사고와 영감에 의한 頓悟의 사고가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직관이나 돈오에 의한 사고는 학습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변증을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 검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편타당한 방법이라 말하기 어렵다. 그리고 다양한 변증이 있지만 변증을 시작함에 있어서 어떤 이론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과 과정에 대한 설명도 없는 실정이다[7].

변증을 함에 있어 어떤 변증이론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검증방법이 제시된 연구도 미비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변증이론을 선택하기까지의 사고과정에 대해 언급한 바도 없다. 이 때문에 중의진단학에서도 직관이나 돈오라는 용어를 쓴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변증이론의 특성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변증을 진행함에 있어서 적절한 변증이론을 선택하기 전까지 필요한 과정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 朱文鋒 外. 中医診斷學. p221 “診斷過程中的基本思維形式,主要有分析,綜合,推理与判斷.臨床通過感性認識与理性認識之間的循環往來,從而逐漸達到對疾病本質作出正確判斷的目的. 中醫診斷不僅是推象[邏輯]思維,同時還存在着形象[直觀]思維,靈感[頓悟]思維等”

II. 본론: 변증을 진행하는 기본원칙

사진을 통해 얻어진 정보를 판단하여 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 변증이론을 선택하기 까지의 과정과 기본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적절한 변증이론을 선택하는 과정이 진행되어야만 어떤 변증이론을 선택할 것인가를 쉽게 결정할 수 있고 변증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검증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변증이론을 선택함에 있어서 사진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물론 사진을 통하여 환자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얻는 것이 우선이나, 병증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진과정에서 누락된 정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감별을 위해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변증을 하면서 다시 사진을 해야 한다. 사진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사진을 할 때 가능하면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변증은 사진에서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개별증상에 대한 진단적 의미를 찾고 증상간의 연관성을 찾아 적합한 변증이론을 선택하여 환자의 증상을 이해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기본 원칙이 존재하는데 다음의 5가지 원칙이 그것이다.

1. 증상의 象을 판단해야 한다.

四診을 통해서 환자의 증상을 수집한다. 증상이란 환자가 느끼는 자각증상과 의사의 감각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 즉 기계에 의한 측정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해 측정되는 타각증상으로 구별할 수 있다[1].

통상적으로 환자가 호소하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증상을 症狀, 진단적 의미를 가진 개별적인 증상을 症, 증후군으로서의 병증은 證 또는 病證, 湯證으로 구별하기로 한다[3].

이 症狀들은 의사에 의해 하나의 상으로 인식이 되어야 한다. 상이란 증상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가지는 성질, 특징, 냄새, 모양 등 여러 가지에 의해 결정이 된다[3]. 대표적인 것이 病機十九條이다[8]. 예를 들면 풍(風), 떨림, 어지러움, 간(肝)은 모두 같은 상이라는 것이다. 음양이 밝고 어두움, 가볍고 맑은 것과 무겁고 탁한 것 등의 상으로 구별되는 것과 같다. 음양을 구별하는 데는 반드시 판단기준이 있고 선후와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이 있다. 그러므로 음양을 다시 음중양 양중음으로 나누는 것이다[9].

상의 분류는 문헌에 구별되어 있다. 즉 음양, 사상, 오행, 육기, 장부, 경락 및 정기신, 기혈 등으로 상을 말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분류한다[10]. 이렇게 분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음양의 개념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11]. 단 오행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같은 부류라 하여 하나로 묶어 설명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기혈로 설명해야 하는데 기에 속한다고 폐와 연관이 바로 된다고 보거나 풍이라고 판단해서 바로 간과 연관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상이 상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점 때문에 음양오행이 한의학의 기본이론이 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10].

2. 생리적· 병리적 상태의 판단

증상은 환자가 호소하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말하는데 개인마다 표현의 정도 차이가 있으므로 의사는 호소하는 症狀이 진단적 의미를 가진 症인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즉 환자에게서 확인한 증상이 생리적인 상태에 해당하는지 병리적 상태에 해당하는지를 구별해야 한다[1]. 동의보감은 모든 항목에서 생리적인 내용을 설명한 후 병리적인 상태를 설명하고 치법 및 처방을 제시하였다[12]. 환자들은 생리적인 현상을 병으로 잘못 인식하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월경이 끊어진 것을 병적으로 인식하여 내원하나 임신으로 진단된 경우는 정상적인 생리 현상인 것이다.

3. 상의 판단 후 판단이 옳은가에 대한 증거 확보

症狀에 대해 상을 판단하고 이에 대해 생리적인 현상인지를 판단하면 증상은 진단적 의미를 가진 症으로 걸러진다. 症 역시 처음 症狀을 상으로 판단하듯이 症의 상을 판단해야 한다. 症의 상을 판단하면 이에 대해 옳다는 증거인 증상들이 있어야 한다. 이는 변증을 하는 동안 다시 四診을 통해 확인한다. 여기에는 원칙이 있는데 상이 같아야 하거나 같이 나타나는 다른 특정증상 또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보완적 증상이 있어야 한다.

즉 상이 같아야 하는 것은 일련의 계통적인 상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큰 범위를 정하는 데 많이 쓰인다. 예를들면 상한표증에서 나타나는 공통증상으로 發熱 惡寒 脈浮가 있다[13]. 또 두통이나 천급의 경우 증상이 상부에서 나타나므로 촌맥에 이상이 있으면 상이 같다고 말할 수 있다.

특정 증상의 경우, 특정 증상이 특정 원인이나 질병에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예를들면 두통에서 首如裹 증상이 있다면 濕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因於濕 首如裹)[8].

보완적 증상이란 특정 증상이 아닌 경우는 한 증상만으로 그 증상의 성질을 규정짓기 어려우므로 보완하는 증상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한열왕래의 증상이 나타날 때 구고 인건 목현 등 증상이 있다면 이는 반표반리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과 같다[3].

변증 판단에서의 검증은 큰 범위에서 작은 범위로 차례로 부정을 하여 검토 한다. 예를 들어 간열증인 경우, 먼저 큰 범위인 열증, 그 다음 간의 범위로 검토한다. 열증이므로 열에 의해 심해지는 증상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한을 만나면 증상이 경감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眞假를 판단할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 다음 단계에서 간이 아닌 다른 장부의 열 증상들과 서로 비교해서 다른 장부의 열이 아닌 것을 확인해야 한다.

4. 증 사이의 관계에 대한 판단

증과 증 사이의 관계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상이 같아야 하고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과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인과관계는 생리적 또는 병리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한다.

5. 질병에 대한 이해[3]

변증은 질병을 진단하는 방법이다.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서로 연관을 가지고 있고, 이 증상들은 여러 병리적 기전, 단계를 거치며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질병은 정해진 범위가 있다. 질병의 특성과 질병이 진행 가능한 범위 및 심각성 등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변증을 진행하는데 있어 스스로 검증할 수 있고 변증의 한계를 정할 수 있다. 질병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합병인지 또는 병병인지 전변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III. 결론

본 논문은 환자들의 다양한 증상이 논리적 전개 과정을 거치면서 적절한 변증으로 진단되는 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 과정에는 증의 생리적, 병리적 상태, 증간의 상관관계에서 상에 의한 분석 및 원인, 변증, 치법을 판단하는 진단적 의의가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인 변증의 과정은 사진에서 얻어진 정보에 의해 상을 판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변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과정이 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변증이 이루어질 때 검증도 가능해질 수 있다.

먼저 증상에 대해 상을 판단한다. 그리고 증상에 대해 생리적 병리적 상태의 판단을 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진단적 의의를 가진 증에 대한 상을 판단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증 사이의 관계에 대해 같은 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변증 과정에서 질병에 대한 이해는 전제 조건이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적절한 변증이론을 선택함으로써 변증과정의 논리성을 확보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변증이론 선택의 타당성을 갖출 수 있다.

參 考 文 獻

1. 이봉교, 박영배, 김태희. 한방진단학. 서울, 성보사, 1988, 27, 41, 127
2. 이봉교, 박영배, 김태희. 한방진단학 II변증. 서울, 성보사, 1988, 11-41, 136-147, 159
3. 박영배, 김태희. 변증진단학. 서울, 성보사, 1995, 30-75, 484-486
4. 김범수, 임정화, 이민희, 윤영주. 한국한의학연구원 개발 변증설문지의 신뢰도 연구. 대한한의진단학회지. 2014; 17(1): 29-40.
5. 진희정, 이재철, 장은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국내 변증 연구의 동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4; 12: 1037-1046.
6. 朱文鋒 外. 中医診斷學. 북경, 중국중의약출판사, 2007, 221.
7. 한경숙, 신상훈, 김태희, 박영배. 증후연구에 관한 문헌적 분석. 한의진단학회지. 2004; 8(2): 57-79
8. 홍원식. 정교 황제내경소문. 서울, 동양의학출판사, 1985, 16, 303-304.
9. 김완희, 양기상, 김길훤, 홍무창. 한의학원론. 서울, 성보사, 1982, 23-24.
10. 張介賓. 類經上. 서울, 대성문화사, 1988, 12-13.
11. 김태희. 내경의 맥진과 후대의가설의 비교 연구. 경희한의대논문집. 1987; 10: 375-414
12. 김성수. 조선시대 의료체계와 동의보감.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132
13. 柯琴 編選 . 傷寒來蘇集. 서울, 일중사, 1991, 7